

관구본원의 성모의 밤 행사



가정의 달이자 성모 성월인 지난 5월 3일, 인천 평화의 모후 관구 본원에서는 성모의 밤 저녁기도가 특별하게 봉헌되었습니다.

수도 공동체는 현재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마주한 평화를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에 온전히 의탁하며 간절한 기도를 모았습니다. 성모님께 정성껏 엮어 만든 고운 화관을 바친 것을 시작으로, 마음을 담은 축시 낭송과 묵주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둠을 밝히며 정성스레 준비한 '촛불무용'을 봉헌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지향이 세상의 울림이 되어,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곳마다 어머니의 온전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마음 모아 희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